

# 돈 없고 집 없는 서민 주거안정 돕는다

## 이달 말까지 팔복동 사회주택 입주자 9가구 모집 무주택자·1인가구 소득 242만원 이하 신청가능

전주시가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돕는 '전주형 사회주택'에 입주할 시민을 모집한다. 시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팔복추천마을 토지임대부 '전주형 사회주택'에 입주할 무주택자 9가구를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전주형 사회주택(Social housing) 공급사업'은 시가 민간소유의 토지(건물)를 매입하거나 공공자산을 활용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장기 20년까지 임대

하면, 사업시행자는 건물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주거취약 계층에게 저렴한 임대료(시세 80%이하)로 임대주택을 공급·운영하는 민·관 협력사업이다.

모집세대는 다세대 주택 2동 총 9가구로, 신청자격은 현재 무주택자로서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이 1인 가구 기준 242만4,642원 이하, 2인 가구 기준 373만2,354원 이하인 가구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500만원에 월 임대료 25만원 정도이다.

팔복동 추천마을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은 시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난 10월에 건물을 매입하고, 운영사업자인 한국주거복지 사회적협동조합(대표 김정태)이 오는 2월 말 입주를 목표로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팔복 추천마을 사회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 제출서류는 전주시청 홈페이지(www.jonju.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인 한국주거복지 사회적협동조합 홈페이지(www.coopewc.or.kr)를 참고하거나, 전화(063-255-0479)로 문의하면 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완산구 동완산동에 위치한 사회주택인 전주민달팽이집에 입주할 청년 희망가구 6가구를 선정했다.

시는 시범사업으로 총 15가구의 사회주택을 공급하는데 이어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양연수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 사업은 서울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전국 최초로 실시되는 민·관 협력 주택공급 사업"이라며 "사업시행자와의 다각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을 향후 사업계획에 반영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돕는 성공적인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 사업'을 추진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



## 올해도 새해목표 '금연' 작심삼일 되지 않도록...

### 전주시보건소 지원 사격 금연클리닉 프로그램 다채

전주시보건소(소장 김경숙)가 새해를 맞아 담배를 끊기로 작심한 시민들을 돕기로 했다.

전주시보건소는 2018년 무술년 새해를 맞아 그동안 작심삼일에 그쳤던 금연 시도자들을 위해 다양한 금연클리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먼저, 보건소는 총 6개월간 9차례 이상의 지속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연클리닉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매 방문마다 금연교육과 호기일산화탄소 측정, 니코틴 의존도 평가, 금단증상에 따른 대처방법 상담, 금연보조제 등을 대상자에게 제공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금연에 성공한 시민들에게는 소정의 상품도 지급된다.

시보건소는 또 바쁜 업무와 학업 등으로 인해 직접 보건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이동금연클리닉 프로그램은 전주지역 대학 또는 직장 사업체에서 10인 이상 희망그룹이 금연상담을 신청하면, 상담자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 3~6개월 간 맞춤형 금연상담 서비스



"강한 은행으로 거듭나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2일 본점 3층 대강당에서 임직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시무식을 열고 있다.

를 제공하게 된다.

이와 함께, 보건소는 매일 첫째 주 수요일 3층 보건교육실에서 금연과 건강에 대한 교육, 금연체조, 금연침 시술, 개인별 상담을 제공하는 금연교실 프로그램도 열고 있다.

지난 2017년 한해 보건소의 금연클리닉에는 흡연자 3,188명이 등록하였

으며, 이 중 약 54%인 1,743명(6개월 기준)이 금연에 성공했다.

김경숙 전주시보건소장은 "혼자서 금연을 시도했다가 여러 번 실패한 경험이 있거나 2018년을 맞아 담배를 끊기로 결심한 전주 시민이라면 누구라도 금연클리닉의 도움을 받아 금연을 꼭 성공하길 바란다"라며 "시

민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금연클리닉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직원들 또한 열심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연클리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전화(063-281-6313)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채규남 기자

## 한국연안방재학회 회장에 황규남 교수 선출

### 2019년 1월부터 2년 임기

전북대학교 황규남 교수(56, 공대 토목공학과·사진)가 한국연안방재학회 차기 회장에 선출됐다.

한국연안방재학회는 최근 전자투표 시스템을 이용해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정회원 직접 선거를 실시해 제4대 회장으로 황 교수를 선출했다고 밝혔다.

한국연안방재학회는 지구 기후변화에 따른 연안 재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다학문 및 관산학연의 의견교환의 장을 지속적으로 조성, 연안 재해로부터 연안을 안전하게 보전하고



패적인 연안을 정비·유지해 국민 안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학회다.

이에 따라 황 교수는 2019년 1월 1일부터 2년 동안 회장 임기를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황 교수는 미국 플로리다대와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에서 해안 및 수공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연안방재학회 학술부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기획부회장을 맡고 있다.

/김민근 기자

## 폐교 서남대 학생 186명 선발

### 전북대, 의대 등 특별편입학

### 8~10일 원서접수 실시

### 24일 오후 최종합격자 발표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폐교 명령이 내려진 서남대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특별 편입학을 실시한다.

모집단위는 의예과 45명, 의학과 132명, 한국음악학과 9명 등 모두 186명이다.

학년별 모집 인원은 의예과 1학년 2명, 2학년 43명 등이고, 의학과는 1학년 28명, 2학년 32명, 3학년 35명, 4

학년 37명 등이다. 한국음악학과는 1학년 1명, 2학년 2명, 3학년 6명 등이다.

원서접수는 1차 모집이 1월 8일부터 10일까지며, 전북대 입학정보 홈페이지(http://enter.jbnu.ac.kr)와 유웨이 어플라이(http://www.uwayapply.com) 등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1차 모집 결원 발생 시 1월 30일부터 31일까지 2차 모집이 진행된다.

한국음악학과는 경우 1월 12일 오전 9시 30분 면접고사가 진행되며, 최종 합격자는 1월 24일 오후 4시 전북대 입학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김민근 기자

전북의 핵심 '태양광메카' 세계적인 폴리실리콘 공장 운영 | 1989년부터 30여년간 지역경제 발전에 노력 | 직·간접 고용창출 인원 2,500명 (2017년 12월 기준) | 안전하고 주민친화적 사업장 운영

# 謹賀新年 2018년 새해에도 OCI는 전북경제를 이끄는 대표기업이 되겠습니다

OCI 군산공장

Global Leading Green Energy and Chemical Company **OCI**